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OUR COSMIC SECOND

가제 : 우주의 시간

저자 : Amy Giles

출판사: -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YA 소설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사고의 원인과 비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학생인 해들리 맥컬리. 그런데 해들리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해들리는 있는 힘을 다해 활활 타오르는 비행기에서 빠져 나와 구조된다. 순식간에 모여든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해들리가 지나온 언덕을 따라 비행기 쪽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지만, 해들리는 알고 있다. 탑승객 전원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녀를 치료하는 의사들과 사고 조사를 맡은 형사들, 주변 사람들 모두 왜, 어떻게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지 궁금해한다. 사고 당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직 해일리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해일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해들리는 어쩌다 사고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을까? 감추려고 애쓰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이야기는 해일리가 사고를 당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남들은 모르는 소녀의 비극적인 삶과 사고에 얽힌 진실을 한 꺼풀씩 천천히 벗겨낸다.

해들리의 가족들을 아이를 한 발치 떨어져 지켜본 친구들은 ‘무엇이든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자선모금을 위해 바자회 같은 행사를 열면, 해들리는 한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기부금을 냈다. 그것도 돈을 건네 받은 선생님이 눈이 튀어나올 만큼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기로 유명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행사에 참석은 못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거라는 해들리의 설명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몫 했다. 하지만 때를 지어 여러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는 못 아이들과 달리 몇 안 되는 친구들과만 가까이 지내는 해들리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 매간의 눈에 비친 해들리는 결코 풍족한 집에서 편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자식을 인형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는 부모님,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겨우 찾은 용기가 부른 비극

해들리의 아버지는 딸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정해놓은 경로와 일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해들리를 깨워 한 시간 동안 함께 조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운동도 해들리가 좋아하는 축구 대신 라크로스를 하도록 소속을 마음대로 바꿔 버렸다. 토요일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 경기장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열심히 뛰는 해들리에게 고래고래 호통치며 훈수를 두는 통에 같은 팀 학생들이고 다른 학부모들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해들리의 엄마는 학부모회 회장 자리를 한 번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요하기로 악명 높았다. 그러니 남학생들과의 데이트나 연애는 해들리에게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일곱 살 터울의 귀여운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해들리는, 숨막히는 부모님의 교육 방식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다. 아직 열살 밖에 안 된 동생 릴라만은 제발 그 나이에 맞게 살 수 있기를, 자신처럼 들볶이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의 과도한 통제와 규칙에서 동생을 보호해줄 줄도 아는 어엿한 언니이기도 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든 집안 분위기도 잘 받아들이던 해들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가 연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찰리에게 폭 빠져버린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급속히 커져갔다. 해들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정한 기준과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용기를 생겼다. 그리고 그 일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 모두를 지켜내고 싶은 한 소녀의 강인한 생존력과 의지를 미스터리한 사고를 중심으로 숨겨진 가족의 비밀과 어두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가일스(Amy Giles)는 오네온타 뉴욕즈립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10년간 출판사에서 마케팅과 광고 일을 한 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현재 카피라이터이자 YA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TREASURE OF MARIA MAMOUN

가제 : 마리아 마운의 보물찾기

저자 : Michelle Chalfoun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6년 7월 1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정신 없이 바쁜 엄마와 단둘이 사는 착한 딸 마리아, 낯선 해안가 마을에서 시작된 보물 찾기

브롱크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사는 마리아는 일주일 내내 규칙적인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밤새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인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 날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마리아도 등갓길에 나선다. 아직 회색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 학교에 도착하면 수업을 듣고, 끝나면 다시 천천히 걸어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일단 집에 돌아온 뒤에는,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고 저녁도 혼자 챙겨 먹고 숙제를 하면서 엄마가 오기만 기다렸다.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매일 맨해튼에 있는 병원과 퀸즈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총 열두 시간씩 일하느라 늘 녹초가 되어 퇴근했다. 열두 살 밖에 안 된 나이지만, 마리아는 엄마의 고된 노동과 홀로 짊어진 짐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다. 다른 가족도,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매일 그 긴 시간을 엄마만 기다리면서도 마리아는 깨끗한 집에서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는 엄마와 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아주 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철든 아이였다. 그래서 일상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못살게 구는 일들도 엄마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럴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마리아를 조금씩 알아먹던 그 일들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마리아를 괴롭히는 건 다름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아이들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아온 마리아는 아주 어릴 때 이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이유에서 사이가 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피하고 싫어하는 사이가 됐다. 마리아가 ‘못된 바비들’이라고 이름 붙인 이 무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버릇없이 대들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일쑤인 문제아들로, 마리아만 보면 먹이를 발견한 맹수들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사정없이 괴롭혔다.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라 수시로 마주칠 수 밖에 없으니 더욱 고역이었다. 마리아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 미술 시간에 그린 작품이 바닥에 짓밟혀 못쓰게 되거나, 과학 시간에 만든 과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 부서져 있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복을 갈아입으려고 사물함을 열면 옷이며 신발이 몽땅 더러운 물에 흠뻑 젖어 있기 일쑤였다. 마리아가 새벽에 등교하고 늦게 귀가하는 것도,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착하게 살아온 마리아의 눈 앞에 나타난 보물 지도, 우울하고 답답했던 시간을 털고 시작된 모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할 만큼 체구가 작고 왜소한 마리아는, 못된 바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홀로 하루 종일 애를 써야 했다. 오후에 무사히 아파트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준 어려운 숙제를 겨우 완성해서 서둘러 학교로 걸어가던 그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아침부터 바비들의 시야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사악하기 그지 없는 그 무리들은 성큼성큼 다가와 과제를 보며 비웃고 놀리더니, 마리아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주변 상인들이 발견하고 도와준 덕분에 겨우 그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 날의 일은 마리아에게도 엄마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딸이 그 동안 얼마나 고통 받고 살았는지 전혀 몰랐던 엄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니던 직장을 모두 그만뒀다. 마리아도 학교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엄마와 마리아의 일상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 새 일자리를 구하던 엄마는 해안가 거대한 저택에서 몸이 아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발견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겸, 엄마는 그 일을 맡기로 결심하고 마리아와 함께 지금까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다. 영화감독 출신인 엄마의 고용인은 어딘가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무슨 이유에선가 몸이 극도로 허약해져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엄마가 간간하고 요구 사항도 많은 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리아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해안가의 멋진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자유롭게 구경 다닌다. 꼼짝없이 아파트 안에만 갇혀 살아야 했던 마리아에게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무서워서 피할 존재들이 없는 그곳은 천국과 다름 없었다.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진 마리아는 어느 날 낡은 보트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된다. 먼 옛날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다. 마리아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보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보물만 찾으면 엄마도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리아는 과연 지도에 표시된 곳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엔 보물이 정말 숨겨져 있을까?

<저자 소개>

미셸 샬파운(Michelle Chalfoun)은 롱아일랜드에서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